

 한국시멘트협회 KOREA CEMENT ASSOCIATION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자원순환사회 시멘트산업이 앞장서겠습니다!
	발표일시	2020. 12. 17(목) / 총1매	
담당 부서	홍보협력팀	담 당 자	· 한찬수 부장(홍보협력팀장) ☎ (02)538-8237/HP(010)3759-7108 E-Mail speedfire@cement.or.kr

시멘트 제조용 부원료 사용에 대한 시멘트업계 입장

최근 한 인터넷 언론서 보도한 “폐암 유발 독성 쓰레기로 아파트 짓는다? 5시간 추격전”(12. 14)중 시멘트 부원료인 석고사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습니다.

첫째, 시멘트는 제조공정 특성상 초고온(1400~2000℃)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건축자재입니다.

시멘트를 제조하는 소성로는 1400~2000℃의 초고온으로 유해요소를 완전히 분해합니다. 공인기관에 의뢰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각 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,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도 매월 국내외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방사능 분석 결과를 공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
둘째, 모든 제품은 안전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
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원료 및 부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용 전 시료 채취와 품질 검사로 중금속과 방사선 관련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,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이 완료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셋째, 석고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 부원료입니다.

석고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천연광물을 대체하는 부원료 중 하나로 모든 시멘트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.

넷째, 해당 석고는 반입 이후 품질검사 완료 후 사용 예정입니다.

현재 반입중인 석고 제품은 반입 전 1차 품질검사(X-ray)를 거쳤고, 해당 업체는 사용 전 공인기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뒤 사용할 예정입니다.

끝으로 시멘트 품질이 국민 안전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국내 시멘트업계는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금번 논란과 같은 불안이 해소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.▲